

주의식과 주민전용 공동공간에 대한 요구

Needs for Shared Community Spaces and Housing Consciousness among Apartment Housing Dwellers

김 미 희*

Kim, Mi-Hee

문 희 정**

Moon, Hee-Jeong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the patterns of housing-related attitudes and the kind of needs for shared community spaces among small-sized apartment housing dwellers.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The majority of the dwellers are in a strong need of common spaces, especially for children's activities, social gathering and physical exercises. Housing consciousness can be grouped into 4 categories the propensity to making up common society, the propensity to pursuing the quality of neighborhood, the propensity to orienting natural environment, and the propensity to participating in community. Families with children in primary school are more likely to get involved in the community and the common society than those with children in high school or those in the stage of launching a family. The propensity to making up common society and pursuing the quality of neighborhood have stronger impact on needs for shared community space. This study reveals that the sense of community orientation is the most powerful predictor variable for shared community space needs.

* 정회원, 전남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 정회원, 전남대학교 가정교육과 조교.

I. 서론

1. 연구목적 및 배경

앞으로 국민의 생활수준이 더 향상되고 이에 따른 주거요구도 더욱 수반될 것임을 감안한다면 공동주택은 미래에 '토지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필연적인 주거형태 일 수밖에 없으므로 공동주택이 지금까지의 개념으로 어떤 변화와 혁신없이 그대로 발전된다면 바람직하게 보급되기에는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우리의 토지여건을 감안할 때 소형위주의 주택공급량을 확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소득의 증대와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변화하는 거주자의 주거요구나 생활을 수용해줄 수 있도록 질적측면에서 소형아파트의 거주기능을 향상시켜야 한다. 즉, 질 높은 소형아파트 계획을 위해서는 확대된 주거공간으로써 주거내·외부환경의 기능성을 상호보완적 개념으로 높여 주어야 한다.

특히 앞으로의 사회는 삶의 사회화와 공동체 사회를 지향해 나갈 것이므로 공동주택에서 공유라는 개념 즉, 주거단위는 각각 독립된 생활을 유지하면서 주거외부공간의 여러 공동 복리시설에서 함께 접촉하고 그것을 함께 소유하는 개념은 더욱 중요하게 발전되어야 한다. 즉, 공동주택에서의 융통성있게 수용할 수 있는 거주자의 생활을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공유공간을 통해 육성되도록 노력한다면 소형주택이 보다 원활히 보급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이 개념을 여러 아파트 단지에서 공동수납, 공동독서실, 모임의 방 등의 형태로 원래는 건설업체가 제공해주지 않았지만 순수하게 주민의 자생적 요구에 의해 만들어져 사용되어 지고 있다(고영희, 1995). 이러한 현상은 공동체 사회의 지향에 순응하는 것이기도 하며, 주민공유공간이 미래 주거계획에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주민공용을 위한 구체적인 공간의 종류는 거주자들의 특성에 따라 다양할 수 있

다. 거주자들은 자신들이 가지는 기본적 속성과 거주경험, 주거지향이라는 거주자 속성에 따라 나름의 생활상을 가지게 되며 이러한 생활을 충족시키기 위해 서로 다른 요구를 가지게 된다. 실제 거주자의 주요구에 따른 생활의 모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가정할 수 있으므로 거주자의 생활상 파악을 위해서는 거주자의 표면에 나타난 현재의 생활뿐만 아니라 그들의 내면에 잠재된 의식적인 부분에 대한 배려가 필요함이 강조되고 있다(服部 등, 1977).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거주자의 거주의식에 따른 생활상 연구가 필요하다. 이때 주의식은 가족의 주생활을 유도하는 지향성으로 거주의식을 구체화하는 효과적인 연구도구가 된다. 그러나 주의식은 거주자 특성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가지게 되므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아파트계획을 위한 거주자의 생활상 연구에서는 다양한 생활상을 구체화 할 수 있는 유형으로서 주의식의 파악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소형아파트 거주자들의 주민전용 공동공간에 대한 주요구를 구체화하기 위해 생활유형을 주의식 유형을 통해 이해함으로써 생활형에 대응하는 주민전용 공동공간의 요구도를 파악하려는 것이다. 이는 앞으로의 소형아파트 개발시 주민들의 생활행태적 요구에 대응하는 주거외부단지 계획에 필요한 방향을 제시하고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II. 연구문제 및 방법

1. 연구문제

- 1) 주의식의 특성은 어떠한가?
- 2) 주민전용 공동공간에 대한 요구의 특성은 어떠한가?
- 3) 거주자 특성에 따른 주의식은 어떠한가?
- 4) 주의식과 주민전용 공동공간에 대한 요구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광주시에 위치한 아파트 분양면적 25평이하의 소형아파트 밀집 지역에 거주하는 주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대상의 표집에 있어서는 북구, 남구, 서구, 광산구 지역등을 분류하여 행정구역별로 임의표집을 하였고 설문지는 총360부를 배포하여 300부를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내용이 부실하거나 신뢰할 수 없는 응답이라고 판단되는 것을 제외하고 248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3. 조사도구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주민전용 공동공간에 대한 요구, 주의식, 거주자 특성과 주의식간의 관계, 주의식과 주민전용 공동공간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질문지법을 사용하였으며 설문지의 문항을 주의식에 관한 문항, 주민전용 공동공간에 대한 요구 조사문항, 조사대상의 일반사항에 관한 문항 등으로 전체적인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SAS 통계 Package를 이용하여 Cronbach's α 계수, 빈도 및 백분율, 평균, 요인분석, GLM/Duncan-test,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 주의식

거주자들의 주의식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주생활양식에 관한 선행연구(이연숙,1989)를 토대로 수정 보완하여 총4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에 응답방법은 5점 리커트 척도로 하여 '아주 그렇다'의 경우 5, '그렇다'의 경우 4, '보통이다'의 경우 3, '그렇지 않다'의 경우2, '가장 그렇지 않다'의 경우 1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2) 주민전용 공동공간

주민전용 공동공간의 종류와 각 공간에 대한 개념은 기존의 선행연구(이연숙, 1995)를 토대로 하여 22가지 공간을 선정하고 각 공간에 대한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 선정된 공간들을 편의상 비슷한 기능을 담당하는 공간들끼리 묶어서 분류하여 크게 5가지 주민

<표 1> 주민전용 공동공간

	주민전용공동공간	신뢰도
수납 공간	공동창고, 세대별 보관창고, 유모차/자전거 등의 보관소, 지하주차시설	.78
기초생활공유공간	공동식당, 공동세탁실, 다목적행사실, 노인복지회관, 소규모작업장	.76
자녀활동공간	공동놀이방, 실내놀이공간, 공동독서실, 종일제탁아시설	.84
녹지공간	실내정원, 녹지시설, 피크닉시설, 환경친화적인 공원	.77
사회체육시설	실내체육시설, 실외체육시설, 잔디에 산책로 및 조깅코스, 공동휴게실	.76

전용 공동공간으로 나누었다. 설문에 대한 응답방법은 5점 리커트 척도로 하여 '매우 필요하다'의 경우 5, '필요하다'의 경우 4, '보통이다'의 경우 3, '필요하지 않다'의 경우 2, '매우 필요하지 않다'의 경우 1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Ⅲ.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주부의 학력, 주부의 취업여부, 가족생활주기, 주택소유형태 등을 살펴보았다.

주부의 학력은 고졸이하가 64.9%, 대졸이상 35.1%로 나타났으며 주부의 취업여부는 비취업주부가 60.1%, 취업주부가 39.9%로 나타났다. 가족생활주기는 만자녀의 학력과 연령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는데 자녀출산 및 양육초등교육기, 중등교육기, 자녀성년기 등 모두 4단계로 나누어서 조사하였다. 자녀출산 및 양육기가 39.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초등교육기가 26.9%, 중등교육기가 23.1% 순으로 나타났으며 자녀 성년기가 10.1%로 표집되었다. 또한 주택소유형태에 있어서는 소유자와 임차자가 각각 50%씩 분포되어 있었다.

<표 3> 주의식의 요인행렬표

문항구성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공통 분산비
공동 체형 성지 향성	가능하면 집에서 업무나 직장 일을 볼수 있도록 공간이나 시설등이 배려되었으면 한다.	.44	-.12	.01	.00	.27
	이웃과 왕래하며 잘 지낼수 있도록 되어있는 주거환경이 개발된다면 그곳으로 이사갈 위향이 있다.	.45	.02	-.04	.18	.22
	앞으로 형편이 되면 시간과 신경이 쓰이는 시설들을 전문관리인이 관리해 주는 그런 주택에서 살려고 한다.	.53	.15	.09	-.05	.27
	만약 지역 주민들만의 전용복지시설이 안전하게 개발되어 있는 곳이 있다면 그곳으로 이사갈 위향이 있다.	.59	-.02	.11	.05	.32
	지역주민들만 전용하는 복지시설이 있어야 한다고 느꼈다.	.60	.00	.01	.14	.31
근린 환경 의질 추구 성	주택을 구매할 때는 햇빛이 잘 들어오는지를 우선적으로 볼 곳이다.	.11	.45	.00	.20	.25
	주변이 절대로 소음이 없이 조용해야 한다.	.02	.53	.17	-.00	.31
	앞으로 이사를 간다면 무엇보다 주변소음이 없는 조용한 집으로 갈 것이다.	.02	.62	-.01	.01	.41
	앞으로 집을 구매할 때는 공기상태 및 실내환기는 아주 중요한 조건으로 볼 것이다.	.19	.50	.21	-.11	.32
	현대사회에서 주변환경이 나쁘면 생활수준이 향상되더라도 행복하게 살 수는 없을 것이다.	.14	.51	.24	.24	.34
자연 환경 지향 성	답답한 도시보다는 자연환경이 잘 보호된 곳에서 사는 것이 좋다.	.20	.24	.57	-.08	.40
	주택에는 반드시 정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09	.16	.45	.11	.23
	앞으로 아파트가 편리하더라도 정원이 있는 단독주택에서 살겠다.	.20	.07	.47	.13	.28
	전원주택으로 이사가고 싶다.	.15	-.00	.58	-.05	.40
지역 사회 참여 성	앞으로 내가사는 지역의 봉사단체에 가입하고 싶다.	.10	.06	.17	.51	.35
	내가 사는 동네가 더 살기 좋게 된다면 가능한 적극 참여하겠다.	.07	-.04	.05	.58	.38
	내가 사는 지역의 여러가지 일에 관심이 많다.	.24	.12	.05	.44	.26
	고유값	3.11	1.38	1.32	1.00	
	분산의 백분율	36.5	16.2	15.5	11.8	
	누적 백분율	36.5	52.7	68.3	80.1	

<표 4> 주의식의 일반적 특성의 분포

N=248

	아주 그렇다 % (N)	그렇다 % (N)	보통이다 % (N)	그렇지 않다 % (N)	아주 그렇지않다 % (N)	평균 ¹⁾
공동체형성 지향성	31.8 (78)	39.2 (97)	16.6 (41)	9.3 (23)	3.1 (8)	3.8
근린환경의 질 추구성	50.6 (125)	38.0 (94)	6.0 (15)	5.0 (12)	0.4 (1)	4.3
자연환경 지향성	47.1 (118)	29.7 (74)	11.0 (27)	10.8 (26)	1.4 (3)	4.1
지역사회 참여성	28.8 (71)	41.3 (102)	19.4 (48)	10.1 (25)	0.4 (1)	3.8

¹⁾ 5점리커트의 평균점수

2. 주의식의 특성

주의식이 어떠한 유형으로 구분되는지 살펴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주의식 특성이 4개로 추출되었으며 그 결과 <표3>과 같다.

베리맥스 회전방법을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4개의 요인으로 축소되었다. 44 문항중 27문항을 제외한 17문항에서 .40이상의 요인부하값을 얻었다.

고유값이 1이상인 요인은 모두 4개이며 요인 부하값이 .40 이상인 것들을 중심으로 보면 요인 1은 이웃과의 교류나 주변에 이웃들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등을 추구하는 성향으로 "공동체형성 지향성"으로 명명하였고 요인 2는 주변환경의 소음방지, 공기, 햇빛 등과 같은 자연환경의 질을 중요시하는 성향으로 "근린환경의 질 추구성"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3은 주택의 정원이나 전원생활을 중요시 하는 성향으로 "자연환경 지향성"이라고 명명 하였고 요인 4는 지역의 봉사활동이나 행사에 관심을 두는 성향으로 "지역사회 참여성"이라고 명명하였다.

주의식의 각 요인별 신뢰도는 공동체형성 지향형이 .67, 근린환경의 질 추구성이 .63, 자연환경 지향성이 .62, 지역사회참여성이 .58이었다.

이러한 주의식의 구조 중 공동체 형성 지향성은 생활양식의 변화로 나타난 개인주의 생활양식에 대항하는 동네와 이웃을 회복하기 위한 공동체 생활을 중시하는 생활양식도 출현될 것이라고 예측한 미래주거공간의 전개방향(박인석,1995)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4가지 요인의 주의식 특성에 대해 거주자들의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그 결과는 <표4>와 같다. 특히 근린환경의 질 추구성에 대해 가장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서 소형아파트 거주자들은 주택에 있어서 소음이나 채광, 공기상태, 실내환기등 근린환경의 질과 자연환경을 중시하는 것을 알 수 있

으며 이는 환경보존 에 대한 인식의 증대와 현대인의 건강에 대한 가치관의 의식이 높아 가고 있는 것(중앙일보,1995)과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다.

3. 주민전용 공동공간에 대한 요구의 특성

조사대상자들의 주민전용 공동공간에 대한 요구는 대체적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는 <표2>와 같다.

요구도가 높은 순서대로 살펴보면, 사회·체육시설(83.5%), 자녀활동 공간(79.9%), 수납공간(76.3%), 녹지공간(72.5%), 기초생활 공유공간(71.6%) 순으로 나타났다.

<표 2> 주민전용 공동공간에 대한 요구도

N=248

주민전용 공동공간	매우 필요 하다 % (N)	필요 하다 % (N)	보통 이다 % (N)	필요 하지 않다 % (N)	매우 필요 하지 않다 % (N)
수납 공간	49.3 (122)	27.0 (66)	13.1 (33)	6.7 (17)	3.9 (10)
기초 생활 공유 공간	39.2 (97)	32.4 (80)	16.4 (41)	8.6 (21)	3.4 (9)
자녀 활동 공간	52.6 (130)	27.3 (68)	14.3 (36)	4.4 (11)	1.4 (3)
녹지 공간	39.4 (98)	33.1 (82)	18.0 (44)	7.7 (19)	1.8 (5)
사회 체육 시설	53.3 (132)	30.2 (75)	11.0 (27)	3.7 (9)	1.8 (5)

수납공간에 있어서는 지하주차시설, 기초생활공유공간에 있어서는 노인복지회관, 자녀활동 공간에 있어서는 공동놀이방, 녹지공간에 있어서는 환경친화적인 공원, 사회·체육시설에 있어서는 전단에 산책로 및 조깅코스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¹⁾.

이와같이, 소형아파트 거주자들이 주민전용 공동공간을 대체적으로 원하고 있었고 이러한 결과는 단지내에 주민전용 공동공간이 계획되어야 하는 필요성과 중요성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사회·체육시설과 자

녀활동공간을 가장 많이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주민전용 공동공간계획시 사회체육시설과 자녀활동공간이 다른 공간에 비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공간임을 알 수 있었다.

4. 거주자 특성에 따른 주의식

거주자 특성(주부학력, 가족생활주기, 주부의취업여부, 주택소유형태)에 따른 주의식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GLM을 이용한 다중분산분석과 Duncan-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5>와 같다.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공동체형성 지향성과 지역사회 참여성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가족생활주기에 있어서 초등교육기 집단이 중등교육기집단보다 공동체 형성 지향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사회 참여성은 초등교육기 집단이 자녀성년기 집단보다 지역사회 참여성이 높게 나타났다. 근린환경의 질 추구성과 자연환경 지향성은 거주자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로 가족생활주기의 단계가 초등교육기인 집단은 중등교육기 집단에 비하여 대체적으로 공동체 형성 지향성향이 강하고, 자녀 성년기 집단에 비하여 지역사회 참여성향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초등교육기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공동체 의식이 강한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5. 주의식과 주민전용 공동공간에 대한 요구

주민전용 공동공간에 대한 요구에 미치는 주의식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독립성과 다중공선성을 검증한 결과 Durbin - Watson계수가 1.71 - 2.05의 범위로 잔차 자기 상관이 존재하지 않아 독립적이었고,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가 .11-.62이며 분산확대인자가 1.09-1.21로서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회귀 전제 가정이 만족되었다.

먼저 상관관계 분석을 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인 주민전용 공동공간과 주의식간에 정적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그 결과는 <표6>과 같다. 주의식이 주민전용 공동공간에 대한 요구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는 <표7>과 같다. 각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민전용 공동공간에 대한 요구를 각 영역별로 살펴보면 먼저 수납공간에 대하여는 공동체 형성 지향성($\beta = .33$)이 높을수록, 근린환경의 질 추구성($\beta = .20$)

<표5>거주자특성과 주의식간의 관계

N=248

		주부학력		가족생활주기			주부의 취업여부		주택 소유형태		
		고졸 이하	대졸 이상	자녀 양육기	초등 교육기	중등 교육기	자녀 성년기	취업	비취업	소유자	임차자
공동체 형성 지향성	M	3.8	3.8	3.8	3.9	3.5	3.8	3.8	3.8	3.7	3.8
	F	0.1			2.6 [*]			0.0		0.0	
	D			AB	A	B	AB				
근린환경의 질 추구성	M	4.2	4.3	4.3	4.4	4.2	4.0	4.2	4.3	4.2	4.4
	F	0.2			2.0			0.1		2.8	
	D										
자연환경 지향성	M	4.0	4.0	3.9	4.1	4.1	4.0	4.1	4.0	4.0	4.0
	F	0.0			0.9			1.6		0.0	
	D										
지역사회 참여성	M	3.9	3.6	3.8	3.9	3.8	3.5	3.8	3.8	3.7	3.8
	F	5.5			2.5 [*]			0.2		0.2	
	D			AB	A	AB	B				

* P < .05

〈표 6〉 주의식과 주민전용 공동공간에 대한 요구간의 상관관계

	공동체 형성지향성	근린환경의 질 추구성	자연환경 지향성	지역사회 참여성
수납공간	.371***	.236***	.114	.180**
기초생활공유공간	.413***	.204***	.278***	.258***
자녀활동공간	.461***	.313***	.293***	.238***
녹지공간	.402***	.232***	.445***	.194**
사회체육시설	.440***	.241***	.365***	.202***

** P<.01 *** P<.001

이 높을수록 수납공간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기초생활 공유공간에 대하여는 공동체 형성지향성($\beta = .31$)이 높을수록, 자연환경 지향성($\beta = .13$)이 높을수록 기초생활 공유공간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자녀활동공간에 대하여는 공동체 형성지향성($\beta = .30$)이 높을수록, 근린환경의 질 추구성($\beta = .21$)이 높을수록, 자연환경 지향성($\beta = .10$)이 높을수록 자녀공간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녹지공간에 대하여는 자연환경 지향성($\beta = .33$)이 높을수록, 공동체 형성 지향성($\beta = .26$)이 높을수록 녹지공간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사회·체육시설에 대하여는 공동체 형성 지향성($\beta = .28$)과 자연환경 지향성($\beta = .19$)이 높을수록 사회·체육시설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주민전용 공동공간에 대한 요구에 미치는 주의식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공동체형성 지향성, 근린환경의 질 추구성, 자연환경 지향성, 지역사회 참여성 등 모든 주의식 특성이 주민전용 공동공간에 대한 요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주민전용 공동공간의 각 영역 중 수납공간, 기초생활공유공간, 자녀활동공간, 사회·체육시설

〈표 7〉 주의식과 주민전용 공동공간에 대한 요구간의 관계

		N=248	
독립변인	종속변인	β	R ²
공동체형성지향성		0.33***	
근린환경의 질추구성	수납공간	0.20**	0.16
자연환경 지향성		-0.04	
지역사회참여성		0.06	
공동체형성지향성		0.31***	
근린환경의 질추구성	기초생활공유공간	0.10	0.21
자연환경 지향성		0.13*	
지역사회참여성		0.11*	
공동체형성지향성		0.30***	
근린환경의 질추구성	자녀활동공간	0.21**	0.27
자연환경 지향성		0.10*	
지역사회참여성		0.06	
공동체형성지향성		0.26***	
근린환경의 질추구성	녹지공간	0.11	0.28
자연환경 지향성		0.33***	
지역사회참여성		0.02	
공동체형성지향성		0.28***	
근린환경의 질추구성	사회·체육시설	0.11	0.26
자연환경 지향성		0.19**	
지역사회참여성		0.02	

* P < .05 ** P < .01 *** P < .001

의 영역에 대한 요구는 공동체 형성지향성이 가장 많은 영향력이 있는 변수이었으며 녹지공간에 대한 요구는 자연환경 지향성이 가장 영향력있는 변수였다.

따라서 주민전용 공동공간 계획시 거주자의 주의식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IV.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소형아파트 거주자들의 주의식과 주민전용 공동공간에 대한 주요구를 구체화하기 위해 그리고 그들의 생활유형을 주의식 유형을 통해 이해함으로써 생활형에 대응하는 주민전용 공동공간의 요구도를

파악하려는 것이다. 이상의 조사결과에 의하여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1. 소형아파트 거주자들이 주민전용 공동 공간중 자녀활동공간과 사회·체육시설을 많이 원하는 것으로 보아 소형아파트 단지의 주민전용 공동공간 계획시 이러한 공간들이 다른 공간에 비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주의식의 특성은 공동체 형성 지향성, 근린환경의 질 추구성, 자연환경 지향성, 지역사회 참여성 등이며 거주자들은 특히 근린환경의 질 추구성에 대해 가장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택에 있어서 소음이나 공기상태, 채광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 거주자 특성과 주의식간의 관계에 있어서 가족생활주기의 단계가 초등교육기인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하여 대체적으로 공동체 형성 지향성향과 지역사회 참여성향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초등교육기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공동체 의식이 강한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4. 주의식과 주민전용 공동공간과의 관계가 높은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주민전용 공동공간 계획에 있어서 사용자의 요구를 파악하는 매개체로서 주의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이상과 같은 조사결과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원하는 주민전용 공동공간 파악을 위해 질문지법을 사용하였는데, 이 결과를 일반화 시키기에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있지만 본 연구의 계획은 순수한 거주자들의 주민전용 공동공간에 대한 요구도를 파악할 수 있는 연구이므로 기업에 주민전용 공동공간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시킬 수 있는 좋은 도구로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주의식과 주민전용 공동공간이 높은

관련성을 보임으로써 주의식을 유형화하여 각 유형별에 따른 주민전용 공동공간의 요구도를 파악할 수 있는 후속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

- 1) 김미희, 문희정, 「소형아파트 거주자들의 주민전용 공동공간 요구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3권, 8호, pp26-27, 1997.

참 고 문 헌

1. 고영희, 「중산층 소형아파트의 공간계획을 위한 생활행태적 접근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2. 김한수, 김재익, 「아파트 내외부공간 수요패턴의분석」, 대한건축학회논문집권, 11권 p.111-121, 1995.
3. 박철수, 이유미, 서수정, 「아파트 단지내 지하공간 활용방안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2권(5), p.63-73, 1996.
4. 손세관, 정숙희, 「거주자의 다양한 요구를 고찰한 새로운 아파트 평면형식개발에 관한 연구」, 대한 건축학회논문집 13권 1호, P.25 - 29, 1997.
5. 이연숙, 「미래주택과 공유공간」, 서울:경춘사, 1995.
6. 이연숙, 유수연, 「국민주택 규모 기준 변경에 대응한 거주자의 반응연구」, 대한 건축학회지, 9권, 11호, p.3-13, 1993.
7. Karen A. Franck. 「New Households New Housing」, van Nostrand Reinhold: New York, 1995.
8. 조성희, 「아파트 단위평면계획을 위한 거주자의 주요구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0권 12호, P.141 - 143, 1994.